

THROW  
Moe Moe \ Professional Hair Color

THROW COLOR  
BASIC MANUAL



THROW OFFICIAL SITE  
<http://throw-web.com>

スロウヘアカラー 店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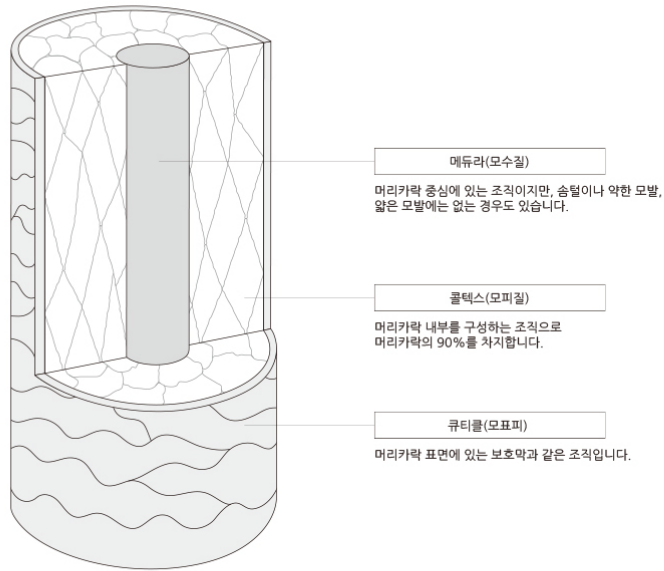
MoltoBene  
PROFESSIONAL

株式会社モルトベネ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20-15  
テクニカルサポートセンター 03(3204)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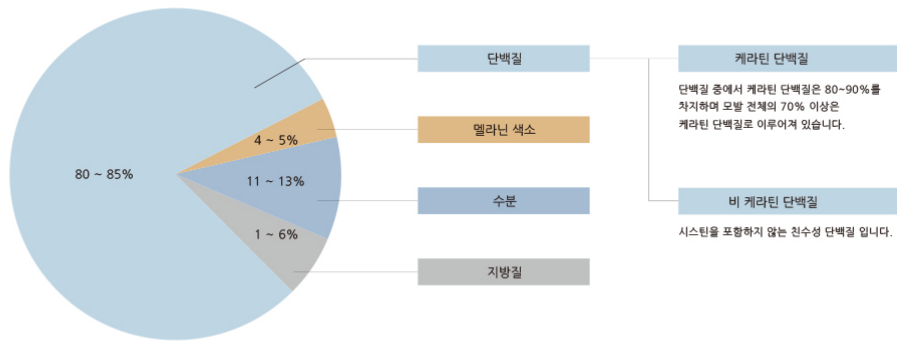
## 모발의 기초지식

### 모발의 구조

모발은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바깥쪽부터 각각 큐티클(모표피)과 CMC(세포막 복합체)를 포함한 큐티클 영역 콜텍스(모피질)와 CMC를 포함한 콜텍스 영역인 매듀라(모수질)라고 불립니다. 그 구조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감발과 닮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큐티클 영역이 김, 콜텍스 영역이 밥, 매듀라가 속재료에 해당됩니다.



### 모발의 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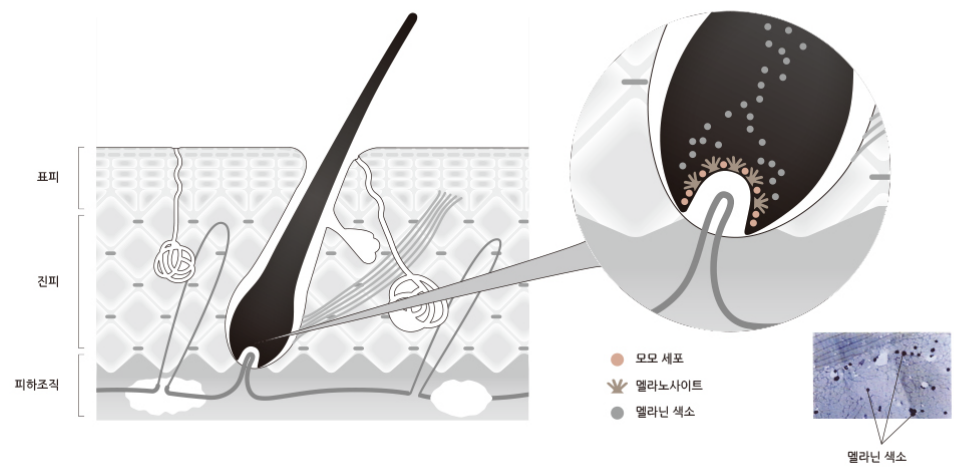


\*그림은 이미지입니다.

## 멜라닌 색소

### 멜라닌 색소는 무엇일까?

멜라닌 색소는 피부·모발에 포함되어 있으며 피부나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짓는 물질입니다. 멜라노사이트(색세포)에서 아미노산의 하나인 티로신을 원료로써 멜라닌 합성 효소(티로시나제)의 멜라닌 합성효소(티로시나제)의 작용에 의해 산화 중합되어 만들어 집니다. 멜라닌 색소는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라고 말하지만 유해한 자외선(Ultra Violet : UV)을 흡수하고 머리카락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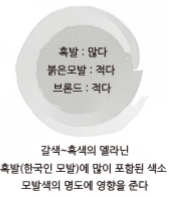


### 모발의 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멜라닌 색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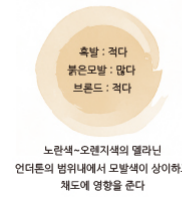
모발 내부에 포함된 멜라닌 색소가 커져거나 양이 많아지면 모발은 빛을 흡수하여 어둡게 보이지만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는 사람의 모발은 빛의 반사에 의해 하얗게 보입니다. 또한 멜라닌 색소에는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 2종류가 있는데 흑발, 붉은모발, 브룬드 등의 모발의 색은 모발 내부에 존재하는 2종류의 멜라닌 색소의 양과 밸런스(비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흑발을 블리치 해보면 먼저 유멜라닌이 파괴되어 모발색이 붉어지면서 오렌지빛으로 변화해갑니다. 좀 더 블리치해보면 모발에는 페오멜라닌의 색이 남아 오렌지빛에서 노란빛으로 변화해 갑니다.

#### 유멜라닌 (진 멜라닌)



#### 페오멜라닌 (아 멜라닌)



\*그림은 이미지입니다.

## 헤어컬러의 기초지식

### 언더톤 레벨이란?

모발의 멜라닌 색소가 블리치 등으로 탈색되어가는 과정을 명도(밝기)만으로 단계적으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언더레벨을 측정하려면 "레벨스케일"을 사용합니다.

레벨스케일



### 언더톤이란?

모발에 포함된 멜라닌 색소가 블리치 등으로 탈색되어 명도(밝기)가 올라가는 과정으로 모발내부에 잔류하고있는 멜라닌 색소의 톤(모발 본래의 색)을 나타낸 것입니다.



### 잔류틴트란?

모발에 잔류하고있는 헤어컬러제의 염료(틴트)의 색상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아닌 과거에 염색된 컬러제 등의 염료)

### 언더컬러란?

멜라닌 색소의 톤(언더톤)과 헤어컬러제의 잔류틴트의 조합에 의해 보이는 색을 가리킵니다. 잔류틴트가 없는 경우는 언더톤이 그대로 언더톤으로 됩니다. 약제를 선정할 때 언더컬러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언더컬러를 확인하려면 언더톤, 잔류틴트, 언더레벨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헤어컬러의 종류와 분류

분류	색소종류	pH	특징	데미지	약사분류
임시염모제	안료	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모는 비교적 간단</li> <li>● 염료는 모발 표면에 부착한다</li> <li>● 샴푸에서 떨어져나간다</li> </ul> <p>THROW HAIR COLOR CONCEALER</p>	없음	화장품
	산성염료	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명한 색상</li> <li>● 윤기가 좋다</li> </ul>	없음	화장품
반영구염모제	HCl염료 염기성염료산	중성 알칼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C염료는 직접염료</li> <li>● 염기성염료는 + 이온을 갖는다</li> <li>● 색감이 좋지않다</li> </ul>	거의 없음	
	영구염모제	금속류	알칼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탄닌산이나 폴리페놀 등</li> <li>● 피마가 나오기 어려워진다</li> </ul>	있음
산화염료 (2제식)		알칼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넓은 명도와 채도로 헤어컬러가 나온다</li> </ul> <p>THROW HAIR COLOR</p>	있음	
		약 알칼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미지가 적은 헤어컬러</li> </ul>	조금 있음	
		약산성 ~ 중성 (pH6~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미지가 거의 없는 헤어컬러</li> <li>● 명도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li> </ul>	거의 없음	
그 외	식물류	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나배합형, 인디고배합 등</li> <li>● 율드는게 많다</li> </ul>	없음	화장품

### pH란?

pH란 수소이온 농도수치의 약어로 그 수용액이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를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pH는 통상 0~14까지로 나타내며 그 가운데 pH7이 중성이 됩니다.

건강한 모발상태는 pH4.5~5.5 사이이며 (이 범위를 등전대라고 합니다) 약산성을 나타냅니다.

약제는 산성 영역의 헤어 매니큐어에서부터 알카리 영역의 파마·헤어컬러까지 폭넓게 약제와 모발(건강모)의 관계성을 알고 데미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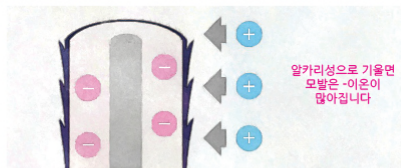
### pH와 이온

모발은 pH상태에 따라 전하(이온)가 변화합니다.

샴푸·트리트먼트·헤어 매니큐어·컬러스프레이 등은 이 원리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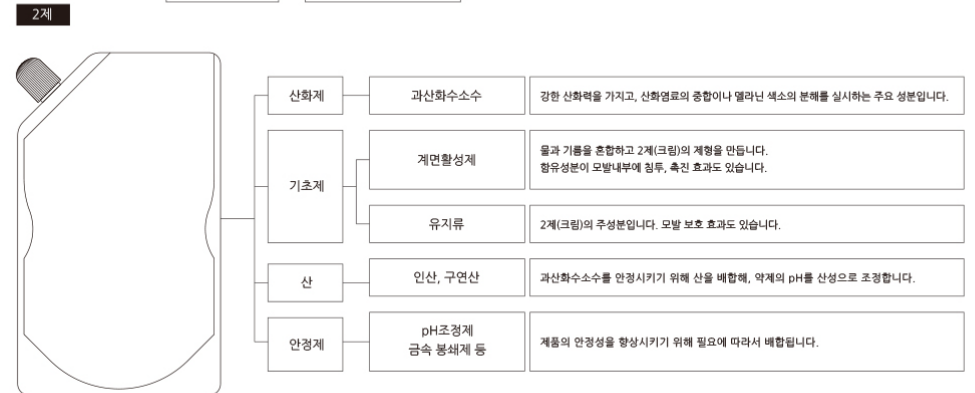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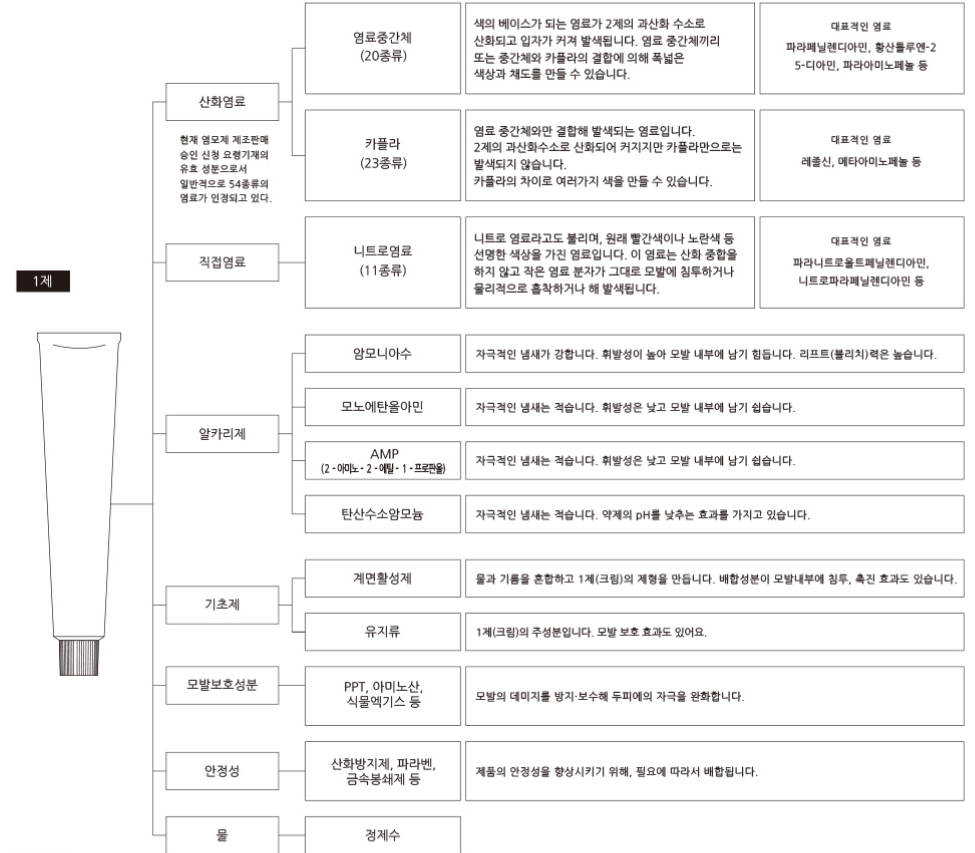
모발에 +이온이 많아지면 -이온과 잘 어울리게 됩니다. 주로 헤어 매니큐어의 염착에 관계됩니다.



모발에 -이온이 많아지면 +이온과 잘 어울리게 됩니다. 주로 트리트먼트의 흡착에 관계됩니다.

\* 그림은 이미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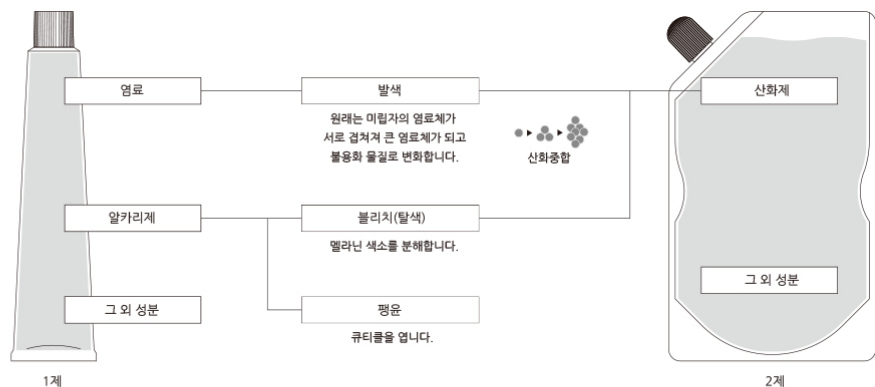
### 약제(1제&2제)의 주요성분



## 알카리컬러(산화 염모제)의 기초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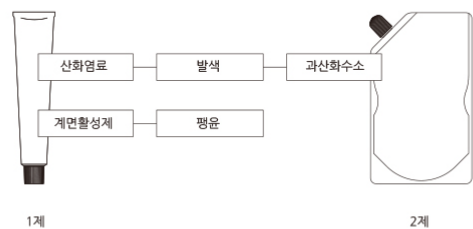
### 알카리 타입의 경우

알카리 헤어컬러는 세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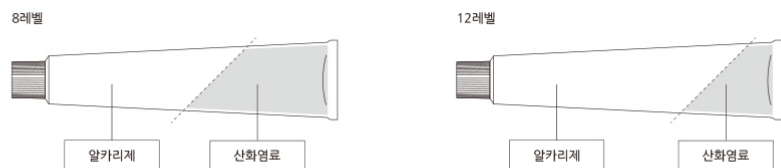
### 약산성 타입의 경우

약산성 헤어컬러는 두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 1제의 명도 설정에 따라 알카리제와 산화염료의 배합 밸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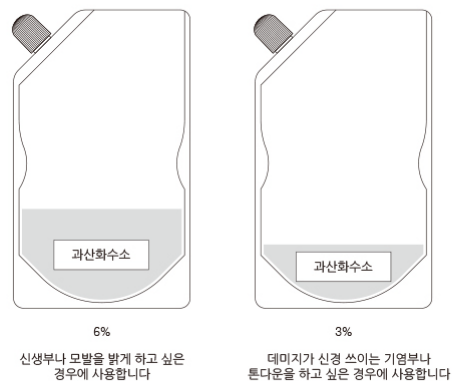
약제의 명도(레벨)가 높아질수록 그 약제에 포함되는 "알카리제"의 비율이 높아져 "산화염료"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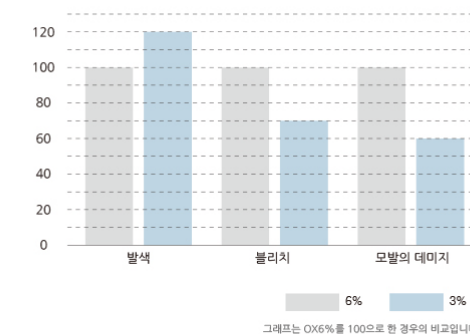
\* 그림은 이미지입니다.

### 2제의 사용

2제는 과산화수소 배합율이 함유율이 다른 타입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특성을 알고 모발이나 목격에 맞추어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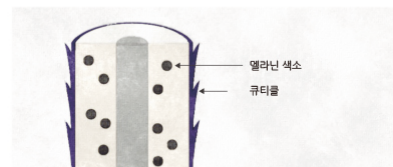


2제의 기능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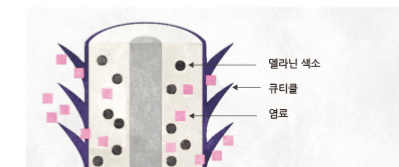
### 염모 매커니즘 (알카리헤어 컬러)

#### 1. 도포 전 상태



1제와 2제를 혼합하여 건조된 머리카락에 도포합니다.

#### 2. 모발의 평윤과 염료의 침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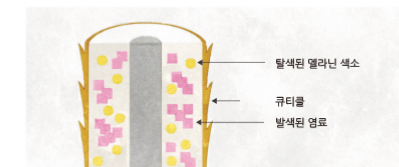
1제 성분 중 알카리제가 큐티클을 열어 염료 등이 머리카락 내부에 침투합니다.

#### 3. 멜라닌 색소의 탈색과 염료의 발색



1제의 알카리제와 2제의 과산화수소에 의해 발생하는 산화력으로 멜라닌 색소를 탈색하고 동시에 염료를 발색시킵니다.

#### 4. 염료의 정착



발색한 염료의 분자는 서로 붙어 전보다 크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염료는 큐티클의 사이에서 나오기 어렵고 머리카락 내부에 갇힌 색으로 정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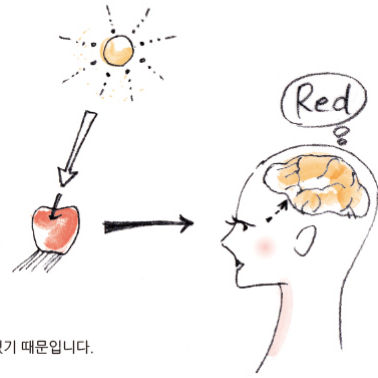
\* 그림은 이미지입니다.

## 색채의 기초지식

### 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물체의 색깔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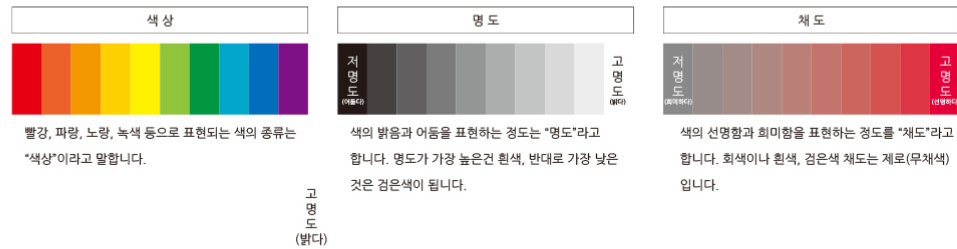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데는 빛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태양이나 형광등이라고 하는 무색투명의 빛(백색광)에는 모든 색의 빛이 균등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그 대부분을 흡수하지만 빨간 빛만 반사합니다. 그 빛이 눈에 들어옴에 따라 우리들은 "사과는 빨갛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과가 붉게 보이는 것은 사과 껍질에 "붉은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색을 느끼기에는 "광원", "물체", "시각"의 3요소가 필요합니다. 캄캄한 상황이나 눈을 감은 상태라면 물체의 색은 볼 수 없습니다. 전자에서는 "광원"이 없기 때문에 물체에 빛이 반사되지 않고 후자에서는 반사된 빛이 "시각"에 도달하지 않아 색으로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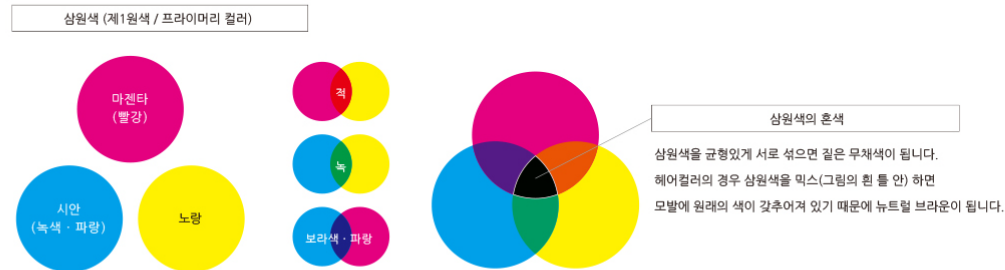
### 색의 삼속성

색이 가지는 성질에는 색, 밝기, 선명함이 있어 각각 색상·명도·채도라고 부릅니다. 이 세가지 성질을 "색의 삼속성"이라고 하며 이것에 의해 모든 색을 분류한다. 이것에 의해 모든 색을 분류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헤어컬러를 생각하는데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됩니다.



### 색의 삼원색

시안(녹색·파랑), 마젠타(빨강·보라색), 노랑을 "색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삼원색은 그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색이며 다른 색끼리 섞어도 나올 수 없는 색이기도 합니다. 이 3색으로(이론상으로는) 모든 색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명 : 제1원색 프라이머리 컬러라고도 부릅니다.



### 색상환이란?

색상환은 어느 일정한 약속에 따라서 색상을 원형으로 나열해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목적이나 용도별로 다양한 색상환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본 색채 연구소가 개발한 PCCS (일본색 연배색 체계 : 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에 근거한 색상환을 소개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색상환 이미지에서 붉은색을 예로 들자면 가장 가까운 색상은 양옆의 "붉은 주황"이나 "적색"이며 반대로 가장 먼 색상은 정반대에 위치하는 "청록"입니다.



자료제공 : 일본 색 연구 사업주식회사

### 보색이란?

색상환에서 정반대에 위치한 색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이 정반대의 위치관계에 있는 색끼리를 "보색관계"라고 합니다. 반대색이라는 말이 있지만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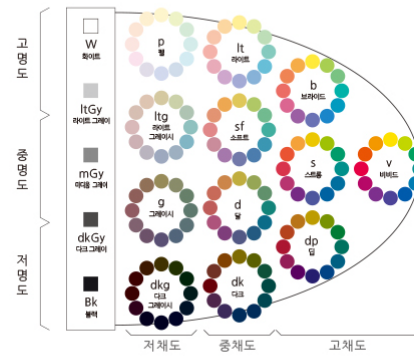
빨간색의 보색은 청록이 되고 파랑색의 보색은 주황색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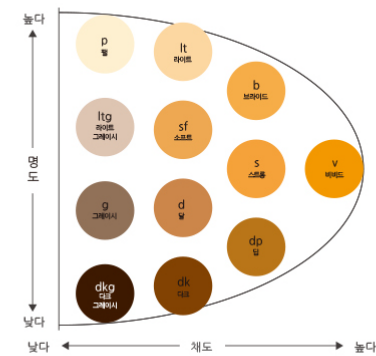
흰 도화지에서 보색끼리 섞으면 짙은 무채색이 됩니다. 헤어컬러의 경우는 베이스의 모발이 브라운이므로 보색을 섞으면 뉴트럴 브라운이 됩니다. 염색을 하는 경우에 보색을 이용합니다.

### 톤에 대해서

색의 명도(명암)와 채도를 조합해 "톤"이라고 부릅니다. 색은 명도와 채도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색상에도 명도와 채도를 조합함으로써 많은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일본 색 연구 사업주식회사



자료제공 : 일본 색 연구 사업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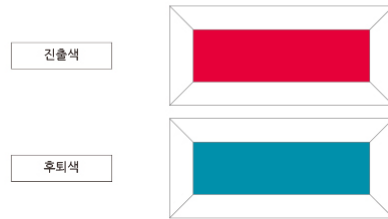
### 유채색과 무채색

색연필이나 그림물감과 같은 채도(선명함)를 가진 색을 "유채색"이라고  
반대로 채도(선명함)가 없는 색(백색, 흑색, 회색)을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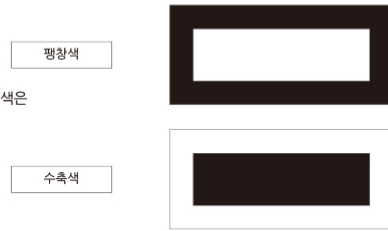
### 진출색과 후퇴색

같은 형태, 같은 면적이라도 색이 다른 것으로 튀어나와 보이거나  
안으로 들어가 보이거나 하는 색을 각각 "진출색", "후퇴색"이라고 합니다.  
빨강 · 주황 · 노란색 등은 "진출색", 청 · 청록 · 청자색 등은  
안으로 들어가보이는 "후퇴색"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아래쪽 파란색  
직사각형 쪽이 빨간색 직사각형보다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로표지판 등은 이 작용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 팽창색과 수축색

"진출색", "후퇴색"과 같이 같은 형태, 같은 면적이라도 색에 의해서 크게 보이거나  
작게 보이는데 크게 보이는 색을 "팽창색", 작게 보이는 색을 "수축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은색과 같은 명도가 낮은 색은 수축되어 보이고 흰색과 같은 명도가 높은 색은  
팽창되어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위아래의 직사각형은 같은 사이즈이지만  
흰색 쪽이 검은색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 그 외 색의 작용

#### 밝은색과 음침한색



명도(색의 밝기) · 채도(색의 선명함)가 같이  
모두 높으면 양기의 느낌이 되고 명도 · 채도가 낮으면  
음기의 느낌이 됩니다. 색상으로 말하자면 난색이  
밝은색이며 한색이 음침한색 입니다.

#### 홍분색과 진정색



붉은색으로 명도 · 채도가 높은색은 홍분색이며  
파랑색으로 명도 · 채도가 낮은색은 진정색입니다.  
붉은색은 심박수를 올리는 작용이 있고 파랑색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 화려한색과 수수한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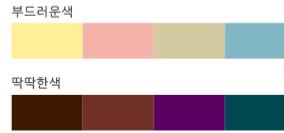
채도가 높으면 화려한 인상으로 보이고  
낮으면 수수한 인상으로 보입니다.

#### 강한색과 약한색



선명하고 진한 색상일수록 강한 이미지.  
반대로 파스텔컬러 등의 연한색은 약한 이미지를  
받습니다. 색상에서는 색의 강함과 약함은 영향을  
주지 않고 명도로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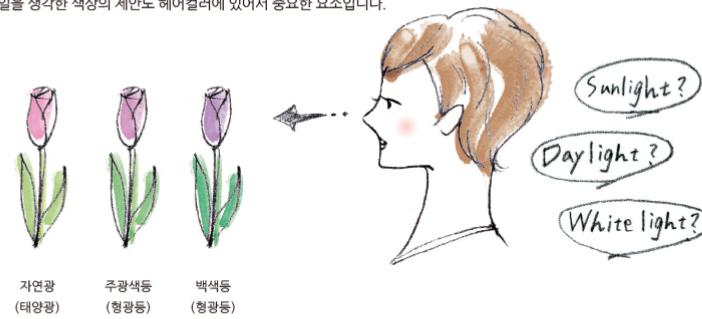
#### 부드러운색과 딱딱한색



강한색과 약한색과 마찬가지로 명도가 낮으면  
딱딱하게 보이고 명도가 높으면 부드럽게 보입니다.

### 광원에 차이에 따른 색상과 차이

헤어컬러의 경우 광원(자연광 · 주광색등 · 백색등)에 따라 색상이 변합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살롱의 광원타입 등을 고려한 약제 선정이나 제안을 합니다.  
같은색의 헤어컬러를 해도 빛의 차이로 색깔이 보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살롱에서는 매트, 애쉬의 색이 강해 보였는데 밖에 나가면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한 색상의 제안도 헤어컬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태양광	자연광	낮 시간 밖에 태양광은 균일한 전파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발 본래의 색으로 보입니다.
형광등	주광색등	백색등보다 푸른색이 완화되어 모발이 자연스런 색상에 가까운 색으로 보입니다.
	주광색등	
	백색등	푸른색이 강해서 모발도 푸른 빛을 띠어 보입니다.
백열등	리플렉터 램프 (레프램프, 아이램프 등)	형광등보다 밝고 종류나 와트수에 따라서 보이는 방법은 다르지만 형광등보다 태양광에 가까운 모발의 색으로 보입니다.
	할로겐램프	
	꼬마 전구	어두워서 살롱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모발의 색으로는 붉은 빛을 띠어 보입니다.

## 모발진단

모발의 상태에 따라 헤어컬러의 컨트롤 방법이 변합니다.  
먼저 모발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시진, 촉진, 문진)으로 진단합니다.

### 1-1. 모질의 감정방법

신생부를 확인(진단)하고 쉽게 밝아지는 모질인지 밝아지기 어려운 모질인지 판단합니다.  
모질은 "단단함", "굵기", "발수성 / 흡수성"의 요소를 합쳐 종합적으로 그 모발을 판단합니다.

단단함	단위	단단함~부드러움	상세	<큐티클의 두께 = 탄력의 유무> 모발 한 움큼을 손가락으로 동글게 말았다 되돌아오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판단방법	촉진		
굵기	단위	두껍다~가늘다	상세	모발의 두께(가늘다, 두껍다)를 판단합니다.
	판단방법	시진, 촉진		
발수성	단위	발수 ~ 흡수	상세	수분이 걸들기 쉬운 머리카락(발수성)인지 흡수하기 쉬운 머리카락인지(흡수성)를 확인합니다. <큐티클이 두껍다 (친유성이 높다 / 유분 많음) = 발수 되기 쉽다> <큐티클이 얇다 (친유성이 낮다 / 유분 적음) = 흡수 되기 쉽다> 두피가 지성인가 건성인가? 스프레이 등으로 물을 뿌리고 피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성 = 수분이 걸들기 쉽다> <건성 = 수분을 흡수하기 쉽다>
	판단방법	시진, 촉진		
백모	단위	양, 분포(장소)	상세	백모의 양이나 어느부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단방법	시진		

### 1-2. 모질 판단에 따른 경향과 대책 (헤어컬러의 경우)

모질의 요소	
단단하다, 굵다, 발수성	부드럽다, 가늘다, 흡수성
진단에서의 경향 (가설)	
밝게되기 어렵다 (염색이 어려운) 모발	밝게되기 쉽다 (염색이 쉬운) 모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밝기보다 1레벨 높게 선택한다.</li> <li>● 2계의 농도를 올린다. (6%)</li> <li>● 슬라이스 폭을 얇게 잡고 많이 도포한다.</li> <li>● 방치시간을 조금 길게 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밝기보다 1레벨 낮게 선택한다</li> <li>● 2계의 농도를 내린다. (3%)</li> <li>● 패션컬러를 할 때는 모근부의 염모제 도포에 주의한다.</li> <li>● 방치시간을 조금 짧게 둔다.</li> </ul>

## 2-1. 데미지레벨의 감정방법

기염부를 확인(진단)하고 데미지 정도 확인하여 약제선정, 사전처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합니다.

밝기	단위	밝다 ~ 어둡다	상세	모발을 한 움큼 잡고 모발의 비치는 감을 확인하고 레벨스케일에서 명도를 체크합니다.
	판단방법	시진		
푸석함 모발의 무게	단위	무겁다 ~ 가볍다	상세	모발 끝이 펼쳐지는 상태를 보거나 가볍게 모발을 들어보고 무게를 확인합니다.
	판단방법	시진, 촉진		
윤기 감촉	단위	유무	상세	손가락으로 모발을 훑어 내려 신생부와 기염부 촉감을 비교합니다.
	판단방법	시진, 문진		
데미지 레벨	단위	유무	상세	자연도 레벨을 기준으로 데미지를 판단합니다.
	판단방법	시진		

## 2-2. 데미지레벨에 따른 사전처리와 케어포인트



데미지레벨 1 ~ 2	데미지레벨 3 ~ 4	데미지레벨 4 ~ 5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사전처리제를 선택하고 데미지 부분의 컨디션을 정돈합니다.	염료의 흡수나 발색 후의 염료 유출이 쉬운 상태이므로 상황에 따라 사전과 사후 데미지를 확실하게 보수합니다.	색상도 생기가 없게 되고 염료 유출도 많이 됩니다. 모발도 탄력이 없고 끊어지기 쉬운 상태이므로 모발내부에 영양보급과 같이 큐티클 보수도 확실하게 하여 염료의 유출도 억제합니다.
그 외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발 명도가 낮아도 푸석하여 모발이 가볍거나 감촉이 나쁘며 윤기가 없는 경우는 데미지레벨이 높은 경우입니다. 문진 등을 확실히 하고 데미지 레벨을 감경합니다.</li> <li>● 데미지레벨 3 ~ 4는 약제(염료)의 흡수가 빨리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li> <li>● 데미지레벨 4는 흡수가 쉽고 염료자체의 유출(색 빠짐)도 빨라 색상도 쉽게 생기가 없어집니다.</li> <li>● 데미지레벨 5는 염료의 정착이 어렵고, 컬러시술 직후에서 유출이 시작되 퇴색 또한 빠릅니다.</li> </ul>		



### 3-1. 잔류틴트(염료)의 감정방법

틴트(염료)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남아있는 경우는 난색인지 한색인지를 확인하고 원하는 색의 영향 유무를 판단합니다. 특히 지난 헤어컬러에서 3개월 이내면 틴트(염료)가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발 중간부분이 가장 많이 잔류하기 쉽고 모발 끝으로 갈수록 잔류량이 적어집니다.

잔류 틴트	단위	유무 / 많다~적다	상세	신생부와 기염부의 경계나 모발 끝의 색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시술이력을 확인합니다 <기간(몇개월 전), 색상(난색 ~ 한색), 질다~열다, 명도, 채도 등>
	판단방법	시진, 문진		

### 3-2. 잔류틴트 진단에 따른 경향과 대책 (헤어컬러의 경우)

잔류틴트와 원하는 색	
잔류틴트와 원하는 색의 색조를 확인합니다. 같은 색조면 잔류틴트를 살리고 다른 경우는 잔류틴트를 조절하는 시술이나 약제설정이 필요합니다.	
잔류틴트를 활용하는 방법	잔류틴트를 조절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류틴트가 원하는 색조와 같고 원하는 색이 나오기 쉬운 경우는 원하는 색조의 약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멜라닌 색소를 제거합니다. (많이 제거하거나 잔류틴트가 분해하기 어려운 경우 톤의 어긋남에 주의합니다)</li> <li>보색으로 뉴트럴브라운에 가깝게 합니다. (명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색소량을 잔류틴트에 맞춰 조정합니다)</li> </ul> <p>*함반으로 보정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컬러채인지를 손님에게 권합니다.</p>

### 4-1. 펴 이력의 감정방법

펴 이력(상태)을 보고 헤어컬러의 시술이 쉬운지 판단합니다.

펴 이력	단위	유무	상세	외견으로 펴(웨이브, 스트레이트, 굽술머리 교정)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과거 시술 내용(시거나 종류 등)을 카운셀링으로 확인합니다.
	판단방법	시진, 문진		

### 4-2. 헤어컬러에 있어서 펴 경향과 대책

펴 이력 진단에서의 경향 (가설)	
열평은 명도가 올라가기 어렵다.	쿨드평은 염료를 흡수하기 쉽다.
▼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계의 명도는 회망보다 1레벨 높게 선택한다.</li> <li>2계 농도를 올린다 (6%)</li> <li>모선부의 발색 상태를 보면서 신생부를 도포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리어제를 사용하는 등 염료농도를 조정한다.</li> <li>사전처리를 행한다.</li> </ul>

### 5. 멜라닌 색소를 보는 법과 특징

원하는 색으로 염색할 때의 적절한 약제선택에는 멜라닌 색소를 보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멜라닌 타입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회색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인이 많다</li> <li>단단하고 굵은 모발이 많다</li> <li>컬러가 반응하기 어렵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세하고 부드러운 모발이 많다</li> <li>컬러가 반응하기 쉽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굵고 단단한 모발이 많다</li> <li>컬러가 반응하기 어렵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세하고 부드러운 모발이 많다</li> <li>한국인이 적다</li> <li>컬러가 반응하기 쉽다</li> <li>염료가 남기 어렵다</li> </ul>
외견(눈진단)의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적으로 붉은기를 띤다</li> <li>투명감이 약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조감이 있다</li> <li>투명감이 강하다</li> <li>노란색이 눈에 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붉은기를 느끼기 어렵다</li> <li>겉게 보이는 모발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li> <li>투명감이 적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색 느낌이나 드라이(건조)감이 있다</li> <li>투명감이 강하다</li> </ul>
명도를 올린다 톤업 주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색 되기 어렵다</li> <li>리프트업하면 붉은기가 나온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리치하기 쉽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리치하기 어렵다</li> <li>투명감이 나오기 어렵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리치하기 쉽다</li> <li>한색으로 집중되기 쉽다</li> </ul>
명도를 내린다 톤다운 주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톤다운하는 경우는 난색계(따뜻한 느낌의 색)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톤다운하는 경우는 조금 생기가 없는 색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톤다운하는 경우는 난색계(따뜻한 느낌의 색)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톤다운하는 경우는 조금 생기가 없는 색으로</li> </ul>
색표현 주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붉은기를 표현하기 쉽다</li> <li>저명도로는 한색계를 표현하기 어렵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 넓은 색 표현 가능</li> <li>색으로 투명감이 나온다</li> <li>회색색보다 밝게 되기 쉽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깊은색을 표현하기 쉽다</li> <li>한색계는 어둡게 나오기 쉽다</li> <li>생기가 있는 색으로 선택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트계는 진하게 나오기 쉽다</li> </ul>
적절한 질감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촉촉한 윤기</li> <li>깊은 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감이 있는 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깊은 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근 느낌</li> <li>투명감이 있는 윤기</li> </ul>
적절하지 않은 질감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감이 있는 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깊은 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촉촉한 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촉촉한 윤기</li> </ul>